

포스텍 공동연구팀, 신한다이아몬드 우수포스터상 수상

온라인 기사 2016년04월06일 16시29분



백승미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석사과정생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포스텍(POSTECH·포항공과대학교)은 신소재공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인 백승미씨 외 5명으로 이뤄진 공동연구팀이 한국분말야금학회(KPMI) 춘계학술대회에서 신한다이아몬드 우수포스터(발표논문)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신한다이아몬드공업이 후원한 이번 우수 논문대회는 한국분말야금학회 춘계학술대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연구팀은 이번 대회에서 '고압 비틀림 공정으로 제작한 순 타이타늄 동맥류 클립의 기계적 특성 평가'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체내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는 동맥류 클립을 순 타이타늄을 이용해 고압 비틀림 공정으로 제작했을 때 생체 재료로서의 적합성과 기계적 물성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를 담았다.

이번 연구는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김형섭 교수와 한세광 교수의 지도 아래 주저자인 백씨와 엄호용 씨(이상 지도교수 김형섭), 정호상씨(지도교수 한세광), 경북대 박재찬씨가 공동으로 수행했다.

ilyodg@ilyo.co.kr

이기사주소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74222

인쇄하기

취소